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

정희원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1. 머리말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노력은 우리 나라가 서양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180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로마자 표기법에 관심을 가져, 발표된 표기법 체계만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이 글의 목적은 수많은 로마자 표기법(안) 중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널리 사용되었던 주요 표기법 체계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로마자 표기법 체계에서 쟁점이 되어 왔던 것은 몇 가지 문제에 집중된다. 즉 (1)로마자 표기를 우리말의 맞춤법에 따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발음에 따라서 할 것인가의 문제와 (2)로마자에 없는 우리말 모음 /ㅜ, ㅡ, ㅝ /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 (3) 자음 체계에서 파열음과 파찰음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로 논의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

으로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약사(略史)

우리말의 로마자화 표기의 역사는 대략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우리 나라에 외국인들의 입국이 공식 허용된 19세기를 전후하여 주로 서양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표기법을 고안하던 단계이고, 둘째는 일제 통치 시기에 일본 및 국내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표기법을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이며, 세 번째는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사용을 권장한 시기이다.

물론 19세기 이전에도 우리말 로마자화의 기록이 개별적으로 있어 왔으나¹⁾ 체계적인 표기법의 출현은 대개 19세기 초반으로 보고 있다. 1832년에 당시 일본 정부의 고문이었던 독일인 의사 지볼트(Phillip Fr. von Siebold)의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1920년대까지 약 27개 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수, 1973:289). 이 중 1880년대 이전 것은 한글 자모에 특정 로마자를 대응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은 1880년대 초부터 한국어 사전과 한국어 학습서가 프랑스어·영어·독일어 등으로 출판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편찬하여 1880년 간행한 〈한불조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과 1881년 출판된 〈한국어 문법〉(Grammaire Coréenne), 1882년에 영어로 출판된 로스(John Ross)의 〈한국어 회화〉(Korean Speech), 1890년의 〈한영조언〉(Korean-English Dictionary), 독일의 가벨렌츠(Georg von der Gabelentz)가 편찬하여 1892년 출판된 〈한국

1) 송기중(1996)에서는 국어 어휘의 로마자 표기의 역사를 13세기 마르코 폴로와 17세기 중반의 하멜의 저서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기술한다.

문자와 언어 개관》(Zur Beurtheilung des Koreanischen Schrift und Lautwesens) 등에서 한국어 어휘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의 표기법은 대개 우리말 어휘나 한글 자모를 특정한 로마자에 대응시켜 표기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1903년에 일본 동경제국대학 교수였던 小藤文次郎과 金澤庄三郎이 〈羅馬字索引 朝鮮 地名字彙〉(A Catalogue of the Romanized Geographical Names of Korea)에서 우리말을 로마자화하여 표기한 뒤,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金澤庄三郎(1910, 1911, 1929), 白鳥庫吉(1914 -6), 前間恭作(1925) 등에 이어 小林英夫(1932), 小倉進平(1934, 1944) 등 일본인 학자들이 각각 로마자 표기법을 구상하여 발표하였다. 1933년에는 프랑스의 아그노엘(Ch. Haguenaer)이 불어식 음성 표기법을 내놓았고, 1935년에는 조선어학회의 회원이던 정인섭이 〈조선어음의 만국 음성부호 표기〉를 발표하였다. 정인섭 안은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하여 발표한 〈조선어음 로마자(羅馬字) 표기법〉(1940)에 많은 영향을 미치었으며, 1959년에 문교부에서 고시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도 그 정신이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 1930년대의 한글 로마자화 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1939년에 발표된 이른바 머큐-라이샤워 표기법이다. 이는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미국인 선교사 머큐(George S. McCune)와 당시 하버드 대학 대학원에서 일본사를 전공하던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가 국내의 학자들의 협조를 얻어 제정하였는데, 1939년에 발표된 이후 오늘날까지 영어권에서는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1945년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물러간 뒤에도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한글학회의 안과 머큐 라이샤워 안 중 어느 것도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정부에서는 문교부 학술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1948년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을 제정·고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최초의 정부 안으로 머쿤 라이샤워 안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1959년에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10여년간 한국 정부의 공식 안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광복 이후 미국에서 음소표기(전자법)를 바탕으로 하는 두 가지의 한글 로마자화 안이 나오게 되었다. 하나는 1947년에 나온 루코프(Lukoff)의 표기법이고, 또 하나는 1954년 예일 대학의 마틴(Samuel E. Martin) 교수가 창안한 소위 예일 체계이다. 이 중 예일 체계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언어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으로서 정확성과 조직성이 뛰어난 체계로 평가 받고 있다. 당시 국내에서는 1948년에 발표한 문교부 안이 10여년간의 공식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59년에 문교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해 두 번째 문교부 안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글의 맞춤법에 따라 로마자를 배당하는 새로운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그러나 새로운 표기법도 일반의 호응을 널리 얻지 못하고 교과서나 정부 간행물, 지도 등에만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미군 등 외국 기관이나 영자 신문 등에서는 머쿤 라이샤워 체계가 여전히 사용되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또 다시 개정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오게 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1980년대에 들어 로마자 표기법을 다시 검토하여 머쿤 라이샤워 체계와 거의 비슷한,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을 공포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1984년에 제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말의 로마자화 표기법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 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체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비교해 보겠다. 여기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1) 머쿤 라이샤워 체계 (MR로 약칭), (2) 한글학회의 <조선어음나마자표기법> (한글학회 안), (3) 예일 체계, (4)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 ('48년 문교부 안), (5)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59년 문교부 안),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84년 문교

부 안) 등이다.

3. 역대 주요 표기법 비교

3.1 표기의 기본 원칙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말의 발음을 로마자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말의 철자를 로마자로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소위 전자법(轉寫法, transcription)은 우리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말 발음을 비슷하게 내도록 하기는 쉬우나, 로마자화된 것만을 가지고는 원래 우리말 철자가 무엇인지 복원해 낼 수가 없다. 반면에 우리말 철자를 로마자로 옮기는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 방식은 발음을 비슷하게 내는 데는 다소 뒤떨어지지만 다시 국어 철자로 전환하기가 쉽다.

‘한라산’의 로마자 표기를 예로 들어 두 가지 표기 방식을 비교해 보자. ‘한라산’의 발음은 [할라산]이므로 전자법에 의한 표기는 hallasan이 될 것이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발음을 나타내기에는 편리하나, 로마자화된 것만을 보고는 그것이 원래 ‘한라산’인지 또는 ‘할라산’을 표기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우리말 정서법에 따라 로마자화하는 전자법 방식에 따르면 ‘한라산’은 hanrasan(또는 hanlasan)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다시 우리말 표기로 환원하기는 쉬우나,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이 바르게 읽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전자법과 전자법은 어느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인지를 같은 기준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각 장단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목적이 다른 표기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음과의 유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전자법 체계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한글 표기로의 복원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둔다면 전자법을 원칙으로 하는 표기 체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역대 우리말 주요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MR안과 MR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른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의 표준 발음을 로마자화하는 전사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MR안에서는 표기법 원리에 대한 설명에서 그들의 체계가 한국어의 철자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²⁾. '84년 고시된 현행 문교부 안에서도 표기의 기본 원칙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체계에서는 ‘국’, ‘국어’, ‘국민’, ‘한국’이 각각 그 발음에 따라 kuk, kugŏ, kungmin, hanguk으로 표기된다. 즉 우리말의 ‘국’이 kuk, kug, kung, guk 등으로 달리 표기된다. 이는 우리말의 ㄱ이 단어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즉 어두나 어말에서는 [k]로, 유성음 사이에서는 [g]로, 비음 앞에서는 [ŋ]으로 발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유무성음의 차이나 발음의 변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국어 화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반면에 예일 체계와 '59년 문교부 안은 우리말 철자에 따라 로마자를 배당하는 전자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체계에서는 한글 표기에서 같은 글자로 적히는 것은 항상 같은 로마자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ㄱ’은 단어 내에서의 위치나 발음의 변화에 관계 없이 항상 g나 k로 적힌다. ‘국, 국어, 국민, 한국’은 예일 체계에서는 ‘kwuk, kwuke, kwukmin, hankwuk’가 되고, '59년 문교부 안에서는 ‘gug, gugeo, gugmin, hangug’가 된다³⁾. 이와 같은 표기 체계는 한글 철자

2) The McCune-Reichauer system aims at representing the pronunciation and not the spelling of Korean words. (김민수, 1973:835에서 재인용.)

3) 두 체계에서 ‘ㄱ’이 k와 g로 달리 적히는 것은, 파열음을 전사하는 표기 세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한글 한 자에 로마자 한 자를 대응시키는 기본 원칙은 예일 체계와 59년 문교부 안이 같다. 그러나 '59년 문교부 안은 받침의 대표음화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고, ‘ㄹ’을 발음에 따라 l과 r로 적는 등 표기 세칙에 있어서는 일부 발음 위주의 표기를 허용한다.

를 잘 아는 사람이 로마자로 표기하기는 매우 쉽지만, kwukmin 또는 gugmin이라는 표기로 [국민]이라는 발음을 유도해 낼 수 없듯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정확히 발음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40년 한글학회 안과 48년 문교부 안은 철자와 소리의 절충적인 표기 방식을 취한다. 원칙적으로는 한글의 자모마다 그에 대응하는 로마자를 일대일로 정한 대조표가 있어 그에 따라 표기한다. 그러나 실제 표기에서는 예외를 두어 접받침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도록 하였고, 자음 동화의 경우도 그 결과를 일부 표기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값[갑], 값만[감만], 값을[갑술]'의 표기는 한글학회 안에서는 gab, gabman, gabsül이 되고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kap, kap man, kaps ūr이 된다. '값'과 '값을'의 표기를 소리나는 대로 한 것은 전자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값만'의 자음동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전자법 원칙을 따른 것이다. 이는 정자법(正字法) 원칙을 약간 완화하면서 발음의 유사성을 나타내려 한 것이므로 절충식 표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2 모음의 표기

우리말의 모음을 로마자로 표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국어에 있는 8개의 단모음(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을 5개의 모음자(a, e, i, o, u)만 가지고 있는 로마자를 바탕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로마자에 특수한 구별 기호(diacritical marks)를 덧붙여 표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단모음도 둘 이상의 글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기존의 표기법 중에 MR안과 한글학회 안, '48년 문교부 안, '84년 제정된 현행 표기법은 구별 부호를 사용하였고, 예일 체계와 '59년 문교부 안은 일부 단모음의 표기에 이중자를 쓰는 방식을 택하였다.

1939년 발표된 MR 체계에서 자음은 영어식으로, 모음은 이탈리아어식을 따

른다는 원칙이 명시된 이래, 이것은 거의 관례화되어 다른 표기법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체계에서 로마자의 5모음 a, e, i, o, u는 이탈리아어 발음에 따라 우리말의 'ㅏ, ㅓ, ㅣ, ㅜ, ㅡ'의 표기에 고정시키고, 로마자에 없는 'ㅑ, ㅓ, ㅕ'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다. 특별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ㅑ, ㅓ, ㅕ, ㅛ'(단모음)와 'ㅓ, ㅑ, ㅕ'(이중모음)의 표기이다.

MR 안에서는 'ㅑ, ㅓ, ㅕ, ㅛ'를 각각 ö, o, u, ü로 표기한다. 'ㅑ'를 'ㅓ'와 구분하고 'ㅛ'를 'ㅕ'와 구분하기 위해서 소위 '반달표(breve)'를 o와 u 위에 하는 방식이다. 'ㅑ'와 'ㅛ'의 표기를 ö와 ü로 하는 데 대해서 머쿤과 라이샤위는 서양 사람들이 듣기에 'ㅑ'는 'ㅓ'와, 'ㅕ'는 'ㅛ'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⁴⁾. 이러한 표기 방식은 전사법을 원칙으로 하는 표기 체계에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한글학회 안, '48년 문교부 안, '84년 문교부 안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ö, o, u, ü로 표기된다. 이들 체계에서 이중모음 'ㅑ, ㅓ, ㅕ'의 표기는 자동적으로 yö, yo, yu가 된다. 'ㅑ'의 표기는 MR안과 한글학회 안,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wö가 되지만, '84년 문교부 안에서는 wo를 쓴다. 이는 우리말에 'ㅕ+ㅓ'로 구성되는 이중모음이 없으므로 반달표 없이 wo만 쓰더라도 다른 모음으로 혼동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의 표기는 MR안과 한글학회 안,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Suwön이지만, 현행 표기법에서는 Suwon이 된다.

MR 체계에서 이중모음 'ㅓ, ㅑ, ㅕ'의 표기는 각각 ae, oe, ü이다. '48년 문교부 안, '84년 문교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표기된다. 따라서 'ㅓ'와 관련되는 이

4) MR안은 특수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전산 처리에 특히 불편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 표기법에서는 반달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불편을 해소하려 하였으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말의 중요한 대립인 'ㅑ/ㅓ' 'ㅕ/ㅛ'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Ö, Ü가 실제로 국어의 'ㅑ, ㅓ' 발음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안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중모음 ‘ㅙ’과 ‘ㅞ’의 표기는 각각 yae, wae가 된다. '40년 한글학회 안은 대부분의 모음을 MR안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지만, ‘ㅙ’만은 ㅞ로 달리 표기한다. 이에 따라 ‘ㅙ’과 ‘ㅞ’는 yě, wě가 된다.

예일 체계는 모음의 표기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그동안 고안되었던 대부분의 로마자 표기법은 a, e, i, o, u 다섯 자를 이탈리아어 발음에 따라 ‘ㅏ, ㅑ, ㅣ, ㅓ, ㅕ’의 표기에 고정시키고 그 밖의 다른 모음들의 표기에 대해서 특별한 표기 방법을 고안해 냈었다. 이와 달리 예일 체계에서는 e와 u를 ‘ㅣ’와 ‘ㅡ’의 표기에 사용한다. 연쇄적으로 종래 e로 표기하던 ‘ㅑ’는 ey로, u로 표기하던 ‘ㅕ’는 wu로 표기한다. 이와 관련된 이중모음 ‘ㅑ, ㅓ, ㅑ, ㅓ, ㅞ’의 표기는 각각 ye, yo, yey, we, wey가 된다. 이 체계에 따르면 ‘ㅑ’는 이론적으로 ywu가 되겠지만, 우리말에 ‘ㅣ’와 ‘ㅡ’가 결합된 이중모음이 없으므로 yu로 간략히 표기한다. 또한 이중모음 ‘ㅙ, ㅞ, ㅓ’의 표기는 각각 a, o, u에 y를 더해 ay, oy, uy로 한다. 따라서 ‘ㅙ, ㅞ’는 yay, way가 된다.

'59년 문교부 안은 부가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단모음을 두 자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예일 체계와 통하는 면이 있다. 이 체계에서는 ‘ㅣ’와 ‘ㅡ’를 각각 eo와 eu로 표기하므로 ‘ㅑ’와 ‘ㅓ’를 yeo, weo로, ‘ㅓ’를 eui로 표기한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특수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보통 타자기로도 다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기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ㅙ’과 ‘ㅞ’에 대해서는 MR 체계와 마찬가지로 ae, oe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의 모음 표기 방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39 MR안	a	ǒ	o	u	ũ	i	ae	e	oe	wi
'40 한글학회 안	a	ǒ	o	u	ũ	i	ě	e	oe	wi
'48 문교부 안	a	ǒ	o	u	ũ	i	ai	e	oe	wi
'54 예일 체계	a	e	o	wu	u	i	ay	ey	oy	wi
'59 문교부 안	a	eo	o	u	eu	i	ae	e	oe	wi
'84 문교부 안	a	ǒ	o	u	ũ	i	ae	e	oe	wi

이중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39 MR안	ya	yǒ	yo	yu	yae	ye	wa	wae	wǒ	we	ũi
'40 한글학회 안	ya	yǒ	yo	yu	yě	ye	wa	wě	wǒ	we	ũi
'48 문교부 안	ya	yǒ	yo	yu	yai	ye	wa	wae	wǒ	we	ũi
'54 예일 체계	ya	ye	yo	yu	yay	yey	wa	way	we	wey	uy
'59 문교부 안	ya	yeo	yo	yu	yae	ye	wa	wae	weo	we	eui
'84 문교부 안	ya	yǒ	yo	yu	yae	ye	wa	wae	wo	we	ũi

3.3 자음의 표기

우리말 자음을 로마자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논란을 빚어 온 부분은 파열음과 파찰음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유성음 : 무성음의 2항적인 대립만이 존재하는 로마자로 평음 : 유기음 : 경음의 3항적 대립 체계를 가지는 국어의 자음을 표기해야 하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이다.

MR안과 현행 표기법인 '84년 문교부 안은 'ㄱ, ㅋ, ㆁ'을 k, k', kk로 표기한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ㄷ, ㅌ, ㄷ'은 t, t', tt가, 'ㅂ, ㅍ, ㅃ'은 p, p', pp가 된다. 즉 이들 체계에서는 우리말 어두의 파열음이 무성음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평음 'ㄱ, ㄷ, ㅂ'을 무성음인 k, t, p로 적는다. 경음 'ㄱ, ㅋ, ㆁ'은 평음을 겹쳐 쓰는 한글 창제 원리에 따라 kk, tt, pp로 적는다. 유기음 'ㅋ, ㅌ, ㅍ'은 무

성 파열음에 ‘어갯점(apostrophe)’을 덧붙여 k', t', p'로 표기한다. 이 체계에서 파찰음 ‘스, 츠, 짜’는 각각 ch, ch', tch로 적는다. MR안과 '84년 문교부 안에서 특별한 점은 유성음 사이에서 자음이 유성음화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말 발음에 따라 로마자 표기를 하는 전사법을 표기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ㄱ, ㄷ, ㅂ, ㅈ’을 어두나 어말에서는 k, t, p, ch로 적지만 모음을 비롯한 유성음(ㄴ, ㄹ, ㅁ, ㅇ) 사이에서는 g, d, b, j로 적는다. 예를 들어 ‘제주’의 표기는 Cheju가 되는데, 같은 ‘ㅈ’의 표기가 ch와 j로 달라지는 것은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한 것을 표기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글학회 안과 '59년 문교부 안에서는 평음 ‘ㄱ, ㄷ, ㅂ’에 각각 유성음인 g, d, b를 배당하고, 무성파열음 k, t, p는 유기음인 ‘ㅋ, ㅌ, ㅍ’의 표기에 사용하였다. 이는 영어의 유성음을 우리 나라 사람들이 대개 평음으로 인식하고 무성음을 격음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⁵⁾. 이들 체계에서 경음의 표기는 평음 표기를 겹쳐 쓴 gg, dd, bb로 한다. 파찰음의 표기는 '40년 한글학회 안과 '59년 문교부 안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한글학회 안에서는 ‘ㅈ’에 z를 사용하여 ‘스, 츠, 짜’의 대립을 z, cz, zz로 나타내는 데 반해 '59년 문교부 안에서는 ‘ㅈ’에 j를 사용하여 j, ch, jj로 나타낸다.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파열음의 평음을 무성음인 k, t, p로 적고, 격음을 kh, th, ph로 적으며, 경음은 한글학회 안과 마찬가지로 유성음을 겹쳐서 ‘gg, dd, bb’로 적는다. 파찰음 ‘스, 츠, 짜’는 ch, chh, dch로 표기한다. 이 체계에서는 MR안과 마찬가지로 자음의 유성음화를 표기에 반영한다. 즉 ‘ㄱ, ㄷ, ㅂ, ㅈ’이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될 때는 소리나는 대로 g, d, b, j로 적는다. 예를 들어

5) 예를 들어 영어 단어 Bob과 pop을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보브’, ‘팝’으로 읽고 적는데, 이는 국어 화자들이 어두의 유성음은 평음으로 무성음은 격음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게', '포고'에서 어중의 'ㄱ'이 유성음화하는 것은 chige, phogo와 같이 유성음으로 적는다. 격음의 표기는 kh, th, ph, chh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갯점을 사용하여 p', t', k', ch'로 적는 것도 허용한다.

예일 체계에서는 파열음의 평음을 k, t, p로 적고, 격음을 kh, th, ph로 적는 것은 '48년 문교부 안과 같지만 경음과 파찰음의 표기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경음은 무성음을 겹쳐서 kk, tt, pp로 적고 파찰음은 c, ch, cc로 적는다.

자음의 표기에서 파열음과 파찰음의 표기 이외에 표기 체계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마찰음 'ㅅ, ㅆ'과 유음 'ㄹ'의 표기이다. 'ㅅ'은 MR안과 '84년 문교부 안을 제외한 모든 체계에서 s 하나만을 사용한다. MR안과 '84년 문교부 안은 음운 환경에 따라 s와 sh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사용되는 조건은 두 안이 차이가 있다. MR안에서는 모음 'ㄱ' 앞에 있는 'ㅅ'만을 sh로 쓴다. 따라서 '쉬'는 언제나 shwi가 된다. 이것은 '쉬'를 발음할 때 동반되는 윈순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84년 고시된 현행 표기법에서는 'ㅅ'은 '시'의 경우에만 sh로, 그 밖의 경우에는 s로 적는다. 따라서 '시루'의 표기는 MR안에 따르면 siru이지만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shiru가 된다. 반대로 '쉽다'의 표기는 MR 체계에 따르면 shwipta가 되지만 현행 표기법에서는 swipta가 된다.

'ㄹ'의 표기는 전자법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예일 체계에서만 항상 l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나머지 체계에서는 환경에 따라 r이나 l로 적는다. 다만 언제 r을 쓰고, 또 l을 쓰는지는 표기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MR안과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낱말의 끝에서는 l로, ㅈ은 ll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랑'은 sarang으로, '발'은 pal로, '진달래'는 chindallae로 표기된다. 한글학회 안에서는 "모음 사이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낱말 끝에서는 l로 적는다"고 규정한다. 표기의 결과는 MR안과 같다.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ㄹ받침은 끝소리로 그칠 적에는 r보다 l에 더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낱말의 형상(꼴)의 일정함을 지니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r받침을 취하였다”고 규정하면서, ‘길 kir ,길도 kir to, 길은 kil ün’과 같은 예를 보인다. ‘ㄹ’의 표기에 r과 l 두 글자를 사용하면서, 받침 소리에 r을 쓰도록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다른 체계에서는 이 같은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 안에서도 ‘한 낱말 속에 들어간 ㄹ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고 하여, 받침 뒤의 ‘ㄹ’은 l로 적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신라’는 sinla로 표기된다. ‘59년 문교부 안에서는 초성에는 r, 종성에는 l을 쓴다.

‘ㅎ, ㄴ, ㄹ’과 종성의 ‘ㅇ’ 표기는 모든 표기법에서 h, n, m, ng를 쓴다. 초성 자리에 쓰이는 음가 없는 ‘ㅇ’은 어떤 표기법에서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자 표기법의 자음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자음(파열음)	ㄱ	ㅋ	ㆁ	ㄷ	ㅌ	ㄸ	ㅂ	ㅍ	ㅃ
'39 MR안	k,g	k'	kk	t,d	t'	tt	p,b	p'	pp
'40 한글학회 안	g	k	gg	d	t	dd	b	p	bb
'48 문교부 안	k	kh(k')	gg	t	th(t')	dd	p	ph	bb
'54 예일 체계	k	kh	kk	t	th	tt	p	ph	pp
'59 문교부 안	g	k	gg	d	t	dd	b	p	bb
'84 문교부 안	k,g	k'	kk	t,d	t'	tt	p,b	p'	pp

자음(기타)	ㅅ	ㅆ	ㅈ	ㅊ	ㅌ	ㅎ	ㄴ	ㄹ	ㅇ(받침)
'39 MR안	ch	ch'	tch	s,sh	ss	h	n	m	r,l ng
'40 한글학회 안	z	cz	zz	s	ss	h	n	m	r,l ng
'48 문교부 안	ch	chh	dch	s	ss	h	n	m	r,l ng
'54 예일 체계	c	ch	cc	s	ss	h	n	m	l ng
'59 문교부 안	j	ch	jj	s	ss	h	n	m	r ng
'84 문교부 안	ch	ch'	tch	s,sh	ss	h	n	m	r,l ng

3.4 받침과 형태음운론적 변화의 표기

받침과 형태음운론적 변화의 표기에 관해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논하는 3.1에서 이미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우리말의 맞춤법은 발음대로 적되 형태소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발음과는 표기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표기법과 발음과의 차이가 표기 체계에 따라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특정한 음운 현상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MR안과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받침의 대표음화를 비롯하여 자음동화, 구개음화 등 국어에 나타나는 모든 음운 변화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따라서 '값, 값을, 값만'의 표기는 kap, kapsül, kamman이 된다. 또한 자음 동화의 결과로 소리가 달라지는 '독립[동닙], 속리산[송니산], 신라[실라]'는 그 발음에 따라 tongnip, songnisan, shilla로 표기한다. 구개음화의 경우도 표준 발음에 따라 '굳이[구지]'는 kuji로, '헤돋이[헤도지]'는 headoji로, '같이[가치]'는 kach'i로 표기한다.

한글학회 안과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받침의 대표음화와 구개음화의 경우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고, 자음동화는 동화된 결과의 일부만을 표기에 반영한다. 받침법칙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예를 들어 '옷[온], 옷과[온과], 옷이[오시]'를 한글학회 안에서는 od, odgwa, osi로,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ot, ot kwa, os i로 발음대로 적도록 규정한다. 겹받침의 경우도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넋[녜], 넋도[녜도], 넋이[녜시]'의 로마자 표기는 한글학회 안에서는 nög, nögdo, nögsi가 되고,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nök, nök to, nöks i가 된다. 한글학회 안과 '48년 문교부 안에서 취한 절충식 표기 원칙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자음동화 현상의 표기이다. 이들 체계에서는 자음동화에 의해 2개의 비음 또는 유음이 날 때에는, 앞의 소리는 원형대로(철자대로) 적고 뒤의 소리는 발음에 따라 적도록 하였다. '독립, 속리산, 신라'의 표기는 한글학회 안에 따르면 dognib,

sognisan, sinla가 되고, '48년 문교부 안에 따르면 toknip, soklisan, sinla가 된다. 이 두 체계에서는 또한 구개음화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밭이'와 '물히다'는 한글학회 안에서는 baczi, muczida로,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pachh i, muchhita로 표기된다.

예일 체계는 철저히 전자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국어의 음운 현상을 일체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글과 로마자의 대조표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값, 없다'의 표기는 각각 kaps, eps.ta가 되고, '독립문, 속리산, 신라'의 표기는 tok.lip.mwun, Sok.li-san, Sin.la가 된다. '해돋이'와 '같이'는 haytot.i, cat.i로 표기된다. 다만 이와 같이 표기할 경우 실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발음을 내게 할 수 있으므로,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말 음운 현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⁶⁾.

'59년 문교부 안은 맞춤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받침 법칙만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옷이, 옷과, 옷만, 옷안'의 경우처럼 연결음의 경우 원칙적인 표기는 osi, osgwa, osman, os-an이지만, osi, odgwa, odman, odan과 같은 표기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표기를 허용하는 것은 자음 앞이거나 대립적 실사인 모음 앞에서, 또는 접미사나 어미 등 종속적인 모음 앞에서만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나 접받침의 경우는 gabs(값), jeolmda(줍다)처럼 철자에 따라 적어야 한다. 자음동화나 구개음화의 경우는 이들을 예외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과를 전혀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한글 철자와 로마자와의 대조표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독립, 속리산, 신라'는 doglib, soglisan, sinla로 적고, '굳이, 해돋이, 같이'는 gudi, headodi, gati

6) 예일 체계에서 국어의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점'(dot)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주로 자동적인 형태음소적 교체를 유발하는 형태소 경계를 표시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어 받침의 대표음화는 "noph.ta(놓다)에서 앞에 있는 ph는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p로 발음된다"처럼 설명한다.

로 적는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주요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사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방법은 있을 수 없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의 표기 체계로 옮겨 적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불균형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에서 내용을 검토한 주요 표기법 체계도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우수한 표기법 체계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목적과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말의 주요 로마자 표기법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주요 표기법의 자음과 모음 표기 방식을 계통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우선 파열음 'ㄱ, ㅋ, ㆁ'의 표기 체계는 다음과 같다.

- (1) k, k'(kh), kk : MR안, 예일 체계, '84년 문교부 안
- (2) k, kh, gg : '48년 문교부 안
- (3) g, k, gg : 한글학회 안, '59년 문교부 안

위와 같은 분류는 다른 파열음들도 같은 식으로 표기됨을 뜻한다. 그러나 파찰음 'ㅈ, ㅊ, ㅉ'의 표기는 매우 다양하여 MR안과 '84년 문교부 안에서는 ch, ch', tch로 적고, 한글학회 안에서는 z, cz, zz로,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ch, chh, dch로, 예일 체계에서는 c, ch, cc로, '59년 문교부 안에서는 j, ch, jj로 각기 다르게 표기한다. 이는 다만 초성 자음 표기의 차이일 뿐 받침까지 고려한다면 각각의 표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모음 'ㅏ, ㅑ, ㅓ, ㅕ'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1) ö, o, u, ü : MR 안, 한글학회 안, '48년 문교부 안, '84년 문교부 안
- 2) e, o, wu, u : 예일 체계
- 3) eo, o, u, eu : '59년 문교부 안

모음 'ㅓ'의 표기는 위의 계통과는 또 다르게 분류된다. 즉 MR안, '48년 문교부 안, '59년 문교부 안, '84년 문교부 안은 ae로 적고, 한글학회 안에서는 ö로 적으며, 예일 체계에서는 ay로 표기한다. 이들 단모음과 결합하는 이중모음까지 고려한다면 표기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 편(1986), 로마자 표기법 집성, 역대 한국 문법 대계 제3부 제1책, 탑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1984), "국어 로마자 표기법", 국어생활 창간호.
- _____ (1996),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료집.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충배(1978), "우리말 로마자 표기 문제", 언어 3-2.
- 송기중(199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사용 실태 조사 연구, 문화체육부 용역 보고서.
- 이상억(1994), 국어 표기 4법 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 Martin, Samuel E., Y. H. Lee and S. U. Chang(1967), *A Korean-English dictionary*, New Heaven : Yale Univ. Press ; 1968, Seoul : Minjung-seogwan.